

# 우울증을 앓는 노동자, 지지적인(Supportive) 상사와 근무하는 경우 휴가 덜 사용



**1** 노동자의 우울증에 상사의 대처하는 방식과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15개국\* 노동자 및 상사 16,000명 이상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사가 노동자의 우울증에 관해 대화를 피하는 국가에 있는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4.1일의 휴가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※ 대한민국, 브라질, 캐나다, 중국, 일본, 멕시코, 남아공, 미국 및 유럽 7개국

\* 출처 :

<https://www.ioshmagazine.com/article/depressed-workers-supportive-managers-take-less-time>

**2** 반면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하는 상사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결근율이 낮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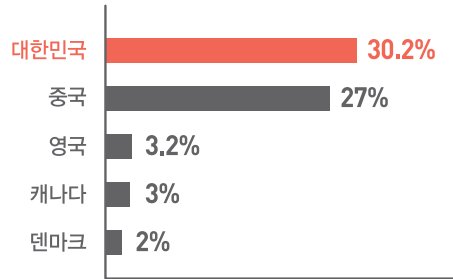
- 지지적인 상사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기 부여된 상태가 유지 되도록 도와주고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

**3** 상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직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회피행동을 부추겨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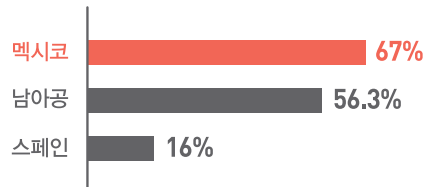


**4 영국의학저널에 출간된 “상사의 지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가?”라는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국가의 상사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함**

- 대한민국 응답자의 30.2%, 중국 응답자의 27%가 상사가 노동자의 우울증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함. 덴마크는 지지적인 상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, 단 2%의 응답자만이 자신의 상사가 이러한 주제에 관한 대화를 피한다고 응답함.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각각 3%, 3.2%를 기록함
- **지지적인 상사의 비율이 높은 국가** : 멕시코(67%), 남아공(56.3%) 스페인(16%)
- 일본의 경우 16%의 응답자만이 상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지적이라 응답함



상사가 노동자의 우울증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비율



지지적인 상사의 비율

**5 프란세스 오그레디(Frances O’Grady) 국제노동조합연합<sup>2)</sup> 사무총장은 ‘아파도 억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’고 언급하며 좋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몸이 좋지 않을 경우 꼭 쉬게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덧붙임**

2) TUC, Trade Union Congress



출 처 :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안전보건동향 9월호 제453호

※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및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